# 일체중생의 생명은 존귀하고 화평하다

## 불교의 평화론

목정배 |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평화는 종교의 궁극적 이상이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한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불교책 서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평화를 내세우지 않는 종교는 없다. 어떻게 보면 평화는 종교의 궁극적인 이상일 것이다. 종교적 평화는 생명의 평등성에 있으며 생명은 그 무엇에도 억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은 무한가치의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 생명 있는 모든 존재 즉 유정(有情)의 살생을 금한다. 계율로 이런 행위를 멀리하며 떠나라고 한다. 《법구경(法句經)》에서는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 죽음을 두려워한다. / 이 이치를 자기의 몸에 견주어 /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고 설파한다.

### 생명의 존엄성 파괴하는 인간 중심주의

그럼에도 현실은 이런 불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것도 하루 하루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치 동물은 인간의 음식, 인간을 위한 실험대상, 오락용 등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유일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생명만 보전하고 살아 있는 나의 몸만 건강하고 편안하면 된다는 자아만족의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이 과연 환경보존 내지 생태계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거기에는 인간 중심주의인 서구적 개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휴머니즘(Humanism)이란 다름 아닌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신의 대리자로서 인간은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대자 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과학발전의 시작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는 외침으로 시작된 근대의 서구 자본주의는 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와서는 인간 종족자체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생태계의 한 종족이 이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간 또한 생태계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한 종족이 생태계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해 지구상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에서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생명의 신비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의 신비를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인간이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그 생명을 살생하는 것은 어딘가 아이러니가 있다. 생명이 신비하면 그 신비는 해치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 애욕에 사로잡혀 알게 모르게 생명의 신비를 해치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명(無明)에 취착(就捉)하기 때문이다. 무명에 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일찍이 붓다께서는 무명은 애(愛)와 취(取)로 된다고 말씀했다. 애는 맹목적인 사랑이고 취는 부질없는 소유욕이다. 맹목적임과 부질없음이 공모해 일을 한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무명이 어떻게 생명의 신비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환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생태계 파괴라는 현실은 무서운 과보를 저지른 결과임에도 인간은 이것이 과보인 줄 모르는 것 같다. 언제나 인간은 무명덩어리로 살아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무명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무명으로 만족은 추구할 줄 알면서도 괴로움의 극복은 생각하지 않는다. 괴로움은 감내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한데 감내하는 자체를 거부하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다.

### 상호불살생의 계율 지켜가야

불교의 평화관은 휴머니즘이 아닌 사트바이즘(sattvaism)이다. 나의 생명이 귀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체중생의 생명은 존귀하고 화평한 것이다. 최근 윤리학에는 에코에티카, 녹색윤리, 자비의 윤리, 환경윤리, 우주선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모든 윤리체계는 단지 하나의 전제, 즉 개인은 서로 의존한 부분으로부터 구성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윤리가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광역적 우주장으로 무쟁원융(無諍圓融)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생명세계의 문제를 우리는 상호불살생(相互不殺生)한다는 불교적 계율을 평화적으로 호지(護持)해야 할 것이다. ■

**목정배**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직중이다. 《계율론》《삼국시대의 불교》《한불교학의 현대적 조명》 등을 펴냈다.